

일일 언론보도 현황

순 번	제 목	언론사	총계
1	여주소방서, 고위험시설 화재예방 및 대처 위해 최선의 노력	여주신문 선경일보 동부중앙신문	3

여주소방서, 고위험시설 화재예방 및 대처 위해 최선의 노력

✎ 박관우 기자 | ⓒ 승인 2021.12.24 15:23

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관내 공장.창고시설 등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잇따르는 대형 공장.창고시설 화재에 선제적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추진되는 주요 방안으로는 ▲관서장 주관 대표자(소방안전관리자 포함) 간담회 실시▲신속한 피난 유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▲관계자에게 화재예방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의견 나눔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개설 ▲간부 현장방문 현장컨설팅 실시 등 추진하고 있으며, 「피난 유도선」은 시청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특히나, 넓은 면적과 함께 미로 구조로 되어있는 공장,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관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.

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“대형 재난은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” 며 “관내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 관계자와 소방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박관우 기자 yeoju5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여주소방서, 고위험시설 화재예방 및 대처 위해 최선의 노력 추진

2021-12-25 23:39

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관내 공장·창고시설 등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잇따르는 대형 공장, 창고시설 화재에 선제적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추진되는 주요 방안으로는 ▲관서장 주관 대표자(소방안전관리자 포함) 간담회 실시 ▲신속한 피난 유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▲관계자에게 화재예방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의견 나눔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개설 ▲간부 현장방문 현장컨설팅 실시 등 추진하고 있으며, 「피난 유도선」은 시청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특히나, 넓은 면적과 함께 미로 구조로 되어있는 공장,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관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.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“대형 재난은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” 며 “관내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 관계자와 소방서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정기성 기자

skilbo@naver.com



여주소방서, 고위험시설 화재예방 및 대처 최선의 노력

“대형 재난은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”

2021년 12월 26일 [동부중앙신문]



© 동부중앙신문

[여주]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관내 공장.창고시설 등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잇따르는 대형 공장.창고시설 화재에 선제적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추진되는 주요 방안으로는 ▲관서장 주관 대표자(소방안전관리자 포함) 간담회 실시▲신속한 피난 유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「피난유도선」 설치 ▲관계자에게 화재예방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의견 나눔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개설 ▲간부 현장방문 현장컨설팅 실시 등 추진하고 있다.

‘피난 유도선’은 시청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특히나, 넓은 면적과 함께 미로 구조로 되어있는 공장,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관계인의 관심이 요구된다.

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“대형 재난은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” 며 “관내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 관계자와 소방서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@hanmail.net

“”

- Copyrights ©동부중앙신문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

 동부중앙신문 기사목록 | 기사제공 : 동부중앙신문